불교 굿즈, 크라우드 펀딩도 접수했다

와디즈, 텀블벅 등 플랫폼서
불교 굿즈 펀딩 사례 급증해
반가사유상, 도트백 등 다양
법정 스님 법문 오디오북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올라온 불교 굿즈 펀딩들.
사진 왼쪽부터 케이굿즈 랩스의 '모서리 반가사유상', 여진불교의 '반가사유상' · '천진동자', 오디오북스의 '법정 스님 육성으로 듣는 108법문'.

바야흐로 불교 굿즈 전성시대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시작된 불교 굿즈 열풍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까지 확산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스타트업, 창작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Crowd)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마케팅 방식이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는 다양한 불교 굿즈들이 펀딩이 진행 중이거나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케이굿즈랩스는 5월 8일까지 두 번째 국보시리즈 '틈새의 사유, 모서리 반가사유상'을 펀딩하고 있다.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의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정밀 주조를 통해 재현했다. 황동 재질의 '모서리 반가사유상'은 별도의 좌대를 만들지 않아 컴퓨터 모니터, 책상 모서리, 운전대 등에 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4월 30일까지 1만8022%를 초과한 9011만4000원을 펀딩받았다.

이진형 장인이 운영하는 여진불교도 '반가사유상' 굿즈를 펀딩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불심이 없으면 부처를 빚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불모 이진형은 뉴욕 원각사의 청동 아미타대불 등을 조성한 장인이다. 이 역시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을 모티브로 했으며 이진형 장인이 수백 번의 손길로 다듬은 반가사유상을 선보인다. 여진불교 측은 "정교한 수작업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품격은 복제가 따라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펀딩은 4월 30일까지 838만6800원으로 1677%를 초과 달성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여진불교는 반가사유상에 이어 '천진동자' 펀딩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기부처를 형상한 '천진동자'는 석가·아미타·약사동자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색상도 선택이 가능하다. '천진동자' 펀딩은 5월 8일 오후 2시 30분 오픈할 예정이다.

5월 4일 오픈하는 패브릭 파인드는 스님들의 바랑을 도트백·크로스백·파우치로 재현한 '일승·보리·공덕' 시리즈를 선보였다. 가방의 색도 감색·가사색·유리색·비로색·연화색을 구현해 불교적 색감을 담아냈다.

창작자 친화적 플랫폼인 '텀블벅'에서도 다양한 불교굿즈들이 펀딩되고 있다. 5월 1일 오픈하는 어스이즈그린은 '사찰 테라리움 DIY 명상 키트'를 선보인다. 테라리움(Terrarium)은 투명한 유리 용기 안에 흙과 식물, 이끼 등을 넣어 작은 생태계를 재현한 실내 정원이다. 어스이즈그린의 테라리움은 원통형 유리 케이스와 불상, 이끼 모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취향 따라 정원을 구성하고 이를 보며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샐리스니들은 4월 30일까지 진행한 '반가사유상 십자수 DIY키트'를 통해 171만9500원을 모아 달성률 343%으로 펀딩에 성공했다. 해당 굿즈는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의 호상을 중심으로 한 도안에 십자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스님의 법문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한 펀딩도 오픈을 앞두고 있다. 오디오북스가 '와디즈'에서 5월 8일 오후 2시 오픈 예정인 '법정 스님 육성으로 듣는 108법문'은 법정 스님의 원적 15주기를 맞이해 기획됐다. 오디오북스는 법정 스님의 맞상좌 덕조 스님에게서 52시간 52분의 육성법문 원본을 제공 받아 오디오북으로 복원했다. '발우'를 형상화한 '무전력 스피커'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NFC오디오북 카드를 제작했다. 법정 스님 육성법문 오디오북은 1000개 한정 수량이다.

오디오북스 측은 "1994년부터 2009년 생전 마지막 법회 현장까지 그때 그 육성 그대로를 재현했다"면서 "음질 가공을 최소화해 법회 현장의 온도와 호흡, 스님의 숨결까지 빠짐없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칼 포퍼의 열린 사회

㊵ 맹인모상(盲人模象)

盲人模象

어느 날 왕이 궁궐 밖의 맹인들을 불러 모아 코끼리를 보여주었다. 맹인들은 각자 손을 뻗어 코끼리를 더듬었다. 상아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무와 같다"라고 했고, 귀를 만진 이는 "키와 같다"라고 했으며, 다리를 만진 이는 "기둥과 같다"라고 단정했다. 저마다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 믿은 그들은 끝내 격렬한 다툼에 빠졌다. 왕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그대들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단정하는구나."

이 이야기는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맹인모상의 우화다. 이 우화 속 맹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닮아 있다. 우리는 자신이 선 자리를 세계의 중심이라 여기고, 손에 쥔 신념을 곧 진리라 착각한다. 동양 고전은 이를 '일반견표(一斑見豹)', 곧 표범의 얼룩 하나를 보고 전체를 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라 경계했다. 프랜시스 베이컨 또한 인간의 인식을 흐리는 '우상(Idola)'을 말하며, 우리가 편견과 언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사물 자체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각자의 우물에서 올려다본 하늘을 우주의 전부라 믿으며, 좁은 시야로 진리를 재단한다.

독단은 여기서 비롯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는 순간, 소통은 맹인들의 다툼처럼 날카로워진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오직 '현상'에 머물 뿐, 그 너머의 '물자체(Ding an sich)'에는 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겸허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찰이다.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식은 닫힌 요새가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된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 역시 이 지점에서 만난다. 그는 진리를 완전한 것으로 단정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는 길이라 보았다. 만약 맹인들이 다툼을 멈추고 서로에게 물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진 것은 기둥 같았는데, 그대는 무엇을 만졌소?"

그 질문 하나로, 코끼리는 비로소 조각이 아닌 전체로 되살아났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더듬고 있는가. 헤르만 헤세는 "진리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며 체험하는 것"이라 했다. 우리의 앎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우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처럼 한정된 앎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서로의 앎을 연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체라는 바다로 나아간다. 내가 쌓아온 학문과 신념, 경험이 비록 미약하더라도 괜찮다. 다만 그것이 전부라는 오만을 내려놓고, 타인의 조각과 맞추어 나가는 일, 그것이 연기(緣起)의 이치이며, 삶을 관통하는 문자반야의 지혜다.

요즘 잘 사용하는 '프레임'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일까? 곰곰 생각해 보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화순 불암사 주지〉

사찰음식, 파리를 사로잡다

문화사업단, 르 꼬르동 블루 파리 특강 성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주프랑스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세계적인 요리 학교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파리 본교에서 사찰음식 특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사찰음식 장인 여거스님, 덕원 스님이 진행했으며, 현지 일반 참가자 80명 대상 특강과 채식 전문과정 재학생 13명 대상 강의로 나누어 이뤄졌다. 일반인 특강은 시연과 시식, 채식전문과정 강의는 시연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일반인 대상 특강에서는 △사찰김밥 △3년 발효 된장국 △양배추 김치 등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발효 풍미를 담은 메뉴가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발효 식재료의 활용법과 사찰음식의 일상적인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채식 전문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개성약과 △인삼정과 △생강차 등 전통 사찰 디저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식사를 넘어 후식 문화까지 아우르는 한국 사찰음식의 폭넓은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이번 강의를 통해 프랑스 현지에 사찰음식과 한국의 깊은 발효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교육기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찰음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